

번역과 한국 및 일본의 근대화

이 근 희
(세종대)

1. 들어가는 말

외부나 내부에서 비롯되는 자극을 시작으로, 자의든 타의든 다른 언어권의 사상과 문물을 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번역의 문제가 대두된다. 번역의 힘을 빌려야만 타자(他者)와의 소통이 가능하며 타자의 존재를 규명하고 선별한 타자의 요소를 자국의 요소로 도입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프랑스 혁명을 출발로 보는 근대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사상적으로는 자유주의가,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가 움트던 시기이다(이경훈 219). 과거의 체제와 문화를 부정하고 새로운 요소를 도입해 새로운 질서와 체제를 수립하려는 근대화와 번역은 매우 밀접한 관계이다, 이질적인 서양의 문물이 대거 투입되며 정치로나, 사상으로나, 경제라는 면에서 대변혁이 일어난 한국과 일본의 근대 또한 마찬가지이다. 번역은 근대화의 도구로서 사회의 다방면에서 제 역할을 하며 서구문물의 수용과 부국강병 및 민권과 자국어의 확립에 기여했다.

그러나 양국의 근대화 과정은 매우 상이하다. 한국의 경우에는 엄격한 쇄국

정책을 펼치다 주변 강국의 강압으로 문호를 개방한 뒤, 내부적인 혼란을 겪다 36년간의 일제강점기 하에서 근대화가 진행되었다. 이와 달리 일본의 경우에는 아편전쟁과 청일전쟁을 계기로 아시아와 서구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면서 탈아입구(脫亞入歐)를 향한 정부 주도하의 광범위한 근대화가 적극 추진되었다. 일본은 서구 열강의 강압 없이 자신들의 의도대로 근대화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는데, 이는 근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구미 열강들이 크림전쟁이나 남북전쟁의 와중에 있었기에 가능했다. 근대 이전에는 동아시아의 주변국에 머물던 일본이 근대 서구 사상의 번역을 통해 동아시아의 중심국으로 서게 되었고, 중국과 한국에 근대화를 전수하는 입장이 된다. 따라서 양국의 근대화에 있어서 번역을 둘러싼 제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리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양국의 근대화에 있어서 번역을 둘러싼 제반 양상의 모습을 비교 분석하는데 있다. 근대화의 상이한 진행과 결과는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역사 속의 사건들은 주기를 두고 순환한다. 따라서 과거에 있던 어떤 현상을 되돌아보고 그로부터 얻은 교훈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을 때 후일에 도래할 유사한 상황에서 현명한 판단을 도모할 수 있다. 두 국가의 근대화과정을 비교해보고 번역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명해보는 일은 현재나 미래에 도래할 어떤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에 본 논고는 양국의 근대화와 번역 현상을 규명함에 있어서, 당시 번역을 둘러싼 시대적인 배경과, 제도적인 지원, 번역관련 기관이나 잡지, 번역가와 번역서, 번역과 언어에 중점을 두고 조사, 분석할 것이다. 근대라는 시대를 규정함에 있어서 의견이 분분하나,¹⁾ 본고에서는 김병철의 분류에(김병철 15-16) 따라 한국의 근대를 개화기부터 6.25까지로(1895-1950) 정한다. 일본의 근대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을 기점으로 하는 명치시대(1868-1912)를 근대로 인식하는바, 본고에서도 이 시기를 일본의 근대로 규정한다. 시대적으로 추산했을 때 일본의 근대가 한국의 근대보다 약 30년 일찍 시작해 40년 먼저 끝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아시아의 근대화에 일본이 주도권을 쥔 수밖에 없음을 설

1) 정인섭은 서구문학의 번역사를 크게 네 시기로 분류하는데 갑오경장이 일어난 1894년부터를 제 1기로, 해외문학과의 활동이 컸던 1926년부터를 제 2기로, 1945년 종전 후부터를 제 3기로, 1954년 국제 팬클럽 한국본부가 창립된 이후를 제 4기로 분류한다(159).

명한다. 번역과 근대의 여러 상황을 살피기 전에 먼저 근세에 대한 배경 지식을 짚고 가야 한다. 어떤 사건의 이전 배경을 살펴보는 일은 그 일의 당위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2. 번역과 근세

2.1 한국의 근세

한국사(韓國史)에서 근세는 일반적으로 조선시대를 근세로 보므로 본고에서도 조선의 건립부터 갑오경장 이전까지 번역을 둘러싼 배경을 대략 훑어보기로 한다.

이미 조선 태조 때부터, 외국어 관련 학문분야를 일컬으며 지금의 번역학과 상응하는 역학(譯學) 정책을 펼쳐 태조 원년(1392)에는 역과(譯科)를 과거 시험에 포함시켰고, 태조 2년에는 번역가를 일컫는 역관을 전문으로 양성하는 기관인 ‘사역원(司譯院)’을 설치하였다. 세종(1418-1450)도 꾸준히 역학을 장려하여 주변국가와의 교섭에 필요한 한학(漢學), 몽학(蒙學), 여진학(女眞學), 왜학(倭學)을 두루 공부하도록 했다. 통사(通詞)라고도 했던 역관(譯官)은 중인으로서 세습되었는데 세종은 사역원에서 양성한 역관을 중국행 사신의 종사관(從事官)으로 보내는 한학강이관(漢學講肄官)제도를 실시했다. 세종은 사문(史文)과 한어(漢語)에 능했던 인재를 우대했고, 성종 역시 역학에 관심을 두고 총명하고 영특한 어린 인재를 선발하여 한어 학습을 시켰다. 특히 성종 11년(1480)에는 역관 장유성(張有誠)과 황중(黃中)을 이품직(二品職)까지 승진시켰고, 2년 뒤에는 역관을 동서반(東西班)에 탁용할 것을 명하기도 했다. 훈민정음을 창제로 언해(諺解)가 활발해 세종 때에는 김현전과 언문청에서 운서(韻書)를 번역했고, 세조 때에는 간경도감에서 수많은 불경(佛經)을 번역했으며, 성종 때에는 홍문관에서 주요 문헌서를 번역하였다. 번역은 국가 기관이 관장한 국가사업으로 고른 분야에서 널리 지식을 보급하는데 기여했다. 이때가 번역가나 통역가인 역관의 지위가 조선시대를 통틀어 가장 높던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언문교습을 중단했던 연산군 시기(재위 1494~1506)에는 역학이 크

게 위축되며 역관 역시 단절 위기에 놓인다. 이에 중종(재위 1506~1544)은 여러 가지 역학 장려책을 내놓기도 했지만 역관의 질은 날로 저하되었다. 임진왜란(1592~1598)을 전후해서 중국과의 왕래로 다시 역학이 부상했고 역관의 활약 또한 눈부셨다. 인조(재위 1595-1649) 때에는 한학 위주의 역학 정책에서 청학(淸學)을 고려하였고, 순수한 역관들의 학술적 업적도 대단했다. 박통사언해(朴通事諺解) 3권이 이 시기의 업적이다. 숙종(1661-1720)에 이르러 다시 역관의 활동이 활발해 영조(재위 1724~1776)와 정조(재위 1776~1800)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역사전을 편찬하였고, 만주어학을 집대성한 한청문감(漢淸文鑑) 15권은 정조 때에 완성한 듯 추정된다(강신항 69). 영조(1694-1776)는 한학과 청학의 쇠퇴를 막기 위해 사역원의 연혁과 중국이나 일본과의 외교관계라든가 관련사항을 기록하여 통문관지(通文館志)를 완성하기도 했다.

역학자나 역관에 대한 대우에 있어서는 본래 역관의 신분이 세습제인 중인에서 비롯된 듯 대체로 잡사(雜事)나 잡예(雜藝)라 하여 천대했고, 관료들은 역관 출신의 교수에게 배우기를 꺼려했다. 심지어 사신이 역관을 노예처럼 부리는 예도 있었다.

조선 후기에 이르면 개화파가 개항 후의 정세변동에 대처하기 위해 ‘통리기무아문’을 설치(1880)했다. 이 기구에 어학사(語學司)를 두어 각국의 언어와 문자 등을 번역하고 해설하도록 했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거의 없었다. 1883년에는 통역관 양성기관인 영어학교 ‘동문학(同文學)’을 설립하였다. 통역관의 양성은 조선의 자주독립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곳 출신이 당시 많은 활약을 하였다. 3년 뒤 동문학은 육영공원으로 바뀌어 각국의 언어나 역사, 정치 등을 영어로 수업했으나 전통을 중시하고 보수적인 사고방식을 고수했던 고관의 자제만 입학이 가능했기에 서양식 교육과 수용에 한계가 있었다. 결국 1894년 단순 영어학교로 변모한다. 관립 외국어학교의 경우 ‘을사보호조약(1905)’ 체결 이후 대다수 설립 초기와 전연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다가 한일병합(1910) 후에는 모두 없어졌다.

조선정부는 신문과 각종 서적의 간행을 위해 1883년 박문국(博文局)을 설치해 『한성순보(漢城旬報)』를 창간하였다. 국내소식과 아울러 국외사건을 번역해서 국민에게 소개하고 세계의 실정을 알려 개화하는 일이 간행 목적이었다. 박문국의 지식인은 번역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여 ‘언문’으로 성현의 책과

서양의 실용서적을 번역하여 ‘토민(土民)’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했지만(정선태 97), 정작 근대이전에 번역의 의의와 방법론을 제일 먼저 제시한 곳은 『한성주보(漢城週報)』였다. 1886년 2월 15일자 『한성주보』 ‘사의(私議)’의 『논학정제삼(論學政第三)』을 보면 정부에서 번역기관을 설치하여 각종 학과의 기술을 모두 언문으로 번역해주기 바란다는 건의가 있었으나(같은 책 96)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번역의 보조 도구인 사전류의 편찬을 살펴보면, 일본어 관련 사전이나 한어 관련 사전은 일본에서 편찬한 사전이 많았으나 서양어 관련 사전은 별로 없었다. 선교사인 언더우드의 『한영사전(韓英字典)』, 스캇(J.Scott)의 『영한사전(英韓字典)』, 게일(J.S.Gale)의 『한영사전(韓英字典)』 등이 있다. 게일의 사전은 특히 일본어 계통의 새로운 어휘가 많았다. 프랑스어 관련 사전에는 천주교 신부들이 편찬한 『한불사전(韓佛字典)』, 꼬스트(Gerge Coste)의 『한법사전(韓法辭展)』, 알레베크의 『법한사전(法韓辭展)』이 있었으나 부수가 얼마 되지 않았고, 책을 구입할 만큼 경제적인 여유도 없었다. 『한불사전』은 대다수 중국어 계통의 한자어였다. 1874년에 제일 먼저 편찬한 서양어 사전 『노한사서(露韓辭書)』는 간단한 문장의 대역서(代譯書)에 불과하다.

2.2 일본의 근세

일본의 근세는 전국시대 말기 아시카가의 쇼군(將軍)을 축출한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 1534-1582)의 뒤를 이어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1536-1598)가 전국을 통일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1542-1616)가 에도(江戸)에 막부(幕府)를 세운 뒤 메이지 유신(明治維新, 1868)으로 막부시대를 마감할 때까지를 일컫는다. 일본은 개항(1571) 이후 나가사키에서 포르투갈과 스페인 계통의 사람이 무역과 카톨릭교의 전파에 힘쓰면서 이미 ‘남만학(南蠻學)’을 시작으로 서양의 학술을 수용하고 있었다. 막부(幕府) 체제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카톨릭교의 확산이 두려워 쇄국정책(1641)으로 돌아서지만, 나가사키의 데지마에 약 4천평 규모를 내주며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상관(商館)만큼은 주둔하게 했다. 이는 네덜란드가 개신교 국가인데도 종교의 전파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로 네덜란드어로 쓴 서양의 학술을 연구하는 ‘난학(蘭學)’이 성

하게 되었다. 향보·원문기(享保·元文期 1716-1741)에는 막부에서 ‘식산흥업 정책(殖産興業政策)’이라는 개혁정책으로 네덜란드의 학술과 중국의 실용 과학과 기술도입을 장려하였다.

1811년 막부는 번역국(翻譯局)이라고도 하는 ‘만서화해어용(蠻書和解御用)’을 ‘천문방(天文方)’ 내에 설치하였다. 주로 편력(編曆)과 개력(改曆)의 업무를 담당한 기관으로 세계의 지리와 지지(地誌)의 연구를 하던 천문방에 외교 문서의 조사 및 번역 업무를 담당하는 만서화해어용을 설치함으로써 서양 서적의 번역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막부가 서양 서적의 번역 사업을 주도해, 당대 난학자를 대거 투입시켜 프랑스의 쇼메르작 ‘가정백과사전’의 네덜란드어 번역본을 다시 일본어로 번역한 『후생신편(厚生新編)』은 에도 막부의 최대 번역 사업이었다. 『후생신편』은 한문체가 아니라 한자와 히라가나 혼용문으로 이해가 쉬운 문체였으나 발간하지 못했고, 1833년에야 네덜란드어-일본어 사전을 발간하였다(Baker 487). 이 시기에는 인명록에 전문번역가를 암시하는 ‘서양 번역가.....’라는 직업분류군도 등장한다. 아편전쟁(1839-1842)이후로는 지배층이 기존의 양이론(攘夷論)에서 벗어나 자주독립의 길을 모색하고 서구를 알고자 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중국에 거주하는 서양 선교사가 중국인의 도움을 받아 저술한 서양 관련 중국어 서적을 일본어로 번역하여 널리 읽히도록 했다. 이러한 책자는 서양 세계의 정보를 제공해 서양을 탐색하러 가는 일행에게 안내서의 역할을 했다(김동기 2003 273). 1856년 만서화해어용을 ‘만서조소(蠻書調所)’로 명칭을 바꾸고 서양 서적의 번역 및 양학의 교육, 서양 서적 및 번역서의 검열, 번역서의 인쇄 및 출판 등으로 활동범위를 넓혔다. 이로써 난학은 막부 말기에 양학(洋學)으로 발전하였다. 만서조소의 활동범위와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자 막부는 1862년 ‘양학조소(洋學調所)’로 명칭을 바꿔 독립시켰고, 1863년에는 ‘개성소(開成所)’로 명칭을 바꾸어 부국강병을 위한 서양식 군사기술을 도입하고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독일어와 같은 서양의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 메이지유신 이후 개성소와 직, 간접으로 관여된 인사들과 난학의 영향을 받은 인사들이 일본의 근대화와 서양화 작업에 전면 나선다.

나가사키에서 네덜란드어의 학습과 번역과 통역을 담당했던 이들을 통사(通詞, 이진상 446)라 했다. 통사는 통역관겸 상무관이었으며 세습제였고 약 30여 가문이 관여하였다. 통사는 의술용어와 무역상 필요한 일상 회화를 주로 학습

하였으며, 대부분 한학자(漢學者) 출신으로 한학이라는 기초학문이 배경으로 있었다. 통사의 주된 임무는 통역이었으나 1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 네덜란드 선박의 하역 작업 시 매매에 입회하거나 매매용 문서나 서류를 번역하기도 했다. 특히 네덜란드 선적으로 들어오는 화란풍설서(和蘭風說書)의 번역본은 막부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유럽 각국과 인도의 정세 파악에 아주 중요한 정보였다. 화란풍설서의 원문 번역작업은 데지마의 상관장 방에서 상관장이나 선장의 원문 제시와 구두 설명을 통사가 번역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원어를 ‘카타가나(片仮名)’로, 역어를 ‘히라가나(平仮名)’나 한자(漢字)로 대역하였다. 통사는 유럽의 과학이나 의술과 관련서적을 소개하면서 난학을 전파하였고, 점차 학술 면으로 접근하려는 통사가 나타나면서 각 분야의 네덜란드어 서적을 일본어로 번역하였다. 따라서 점차 어학과 의학의 범주를 벗어나 천문학, 약학, 지리학, 이학, 박물학, 병학 등의 분야로 관심을 옮겼다.

번역방법의 내용에 관해서는 서양해부서(解剖書)의 번역서 『해체신서(解体新書)』²⁾에서 엿볼 수 있다. 이 책자에서는 당시의 번역 방법을 3가지로 분류한다. 첫 번째 방법은 번역(翻譯)으로서, 이는 현존하는 한자어로 일대일 대응시키는 방법으로 현재의 대역(對譯)에 해당한다. 두 번째 방법은 의역(義譯)으로서, 의미와 내용에 맞게 새로운 한자어를 창작하는 방법이며 현재의 의역(意譯)에 해당한다. 세 번째 방법은 직역(直譯)으로서, 원어를 그대로 한자나 카타가나로 표기하는 방법으로 현대의 음역(音域)이나 음차(音借)번역에 해당한다. 어휘부문에 있어서는 상당한 양의 어휘가 보태지는데 현재 쓰는 문법 용어, 명사나 대명사, 형용사, 부사, 접속사, 전치사 등도 이 시기에 형성되었다. 신경(神經)이나 췌장(胰臟), 뇌근(腦筋), 쇠골(鎖骨), 등의 의학용어나 수소(水素), 산소(酸素), 탄소(炭素), 전기(電氣), 인력(引力), 항성(恒性) 등의 이학 용어도 당시 번역된 번역어이다.

2) 전 5권으로 되어있다.

3. 번역과 근대화

3.1 번역과 한국의 근대화

한국의 근대화는 갑오경장(1894) 이후 일본을 거쳐서 들어오는 서구문화가 직접 원인이 되어 새로운 문화 건설에 대한 욕구가 일며 시작되었다. 근대 초기까지는 이미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을 본받아 일본 서적을 번역함으로써 서구문명과 문화를 활발히 수용하고자 했다. 그러나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한국 주도의 근대화는 좌절을 겪게 된다. 이러한 배경은 번역이 식민지화의 도구로서 지배국의 문화를 그대로 이식하고 확산하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새로운 문화를 도입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려는 노력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 면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근대 초기인 계몽기에는 진보를 표방하는 지식인들 대다수가 문명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서 번역이나 출판 사업과 국문의 사용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했다. 번역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1902년 4월 30일자에 실린 『황성신문(皇城新聞)』의 논설에서도 엿볼 수 있다. 즉, 정부주도로 번역담당관청을 세워 서구의 서적을 번역해 간행해야 하며, 지식인들의 저술을 널리 배포함으로써 문명세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논지였다. 자국어(韓語)를 강조함에 있어서는 전부 국문으로 기사를 썼던 『독립신문(獨立新聞)』이나 『매일신문(每日新聞)』, 『제국신문(帝國新聞)』은 물론이고, 국문과 한문을 혼용해 사용했던 『황성신문』이나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도 국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계몽의 대상인 국민에게 지식을 널리 전파하고 계몽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국문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문체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국문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한 『독립신문』의 1898년 8월 5일자 논설에는 남녀는 물론이고 빈부에 상관없이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책을 국문으로 번역해야 함을 강조하는 글이 실렸다. 또한 번역의 보조도구로서 사전의 편찬을 강조했을 뿐 아니라 한글의 정비를 위해 띄어쓰기를 강조하였다.

당시의 표기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전부 한글로 쓰는 ‘국문체(國文體)’ 표기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한문명사에 토를 한글로 다는 ‘한문현토체(漢文懸吐體)’ 방법이고, 또 하나는 한글과 한문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국한

문공용체(國漢文公用體) 방법이다. 한문현토체는 20세기 초(1907-1908)에 사라졌다. 종교관련 신문이나 국문을 전용으로 쓰던 신문과 신소설에서는 국문체를 사용했고 역사와 전기(傳記) 등에는 한문체를 사용했다. 번역에도 상황은 같아서 부녀자나 학생을 독자로 하는 책은 국문체로 번역했으며, 역사나 전기물, 학술관련 책은 국한문체로 번역하는 일이 다수였다. 치열하던 문체(文體)의 문체는 1905년 통감부를 설치하고 일본의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국한문체가 자리 잡았다. 국문체를 전용했던 성서번역과 찬송가번역은 개화 초기의 신문학(新文學)뿐 아니라 개화기 이후의 소설문학과 언문일치의 문장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 가운데 1933년에서 1939년까지 간행하던 덕원신학교의 교지 『신우(神友)』는 수준 높은 외국 학자의 글을 번역해 실었는데(정준영 27) 이로 말미암아 근대기의 번역활동에 종교계가 그 일선에 있었으며 영향 또한 컸음을 알 수 있다.

번역은 주로 원문보다는 일본어 번역본이나 중국어 번역본을 다시 번역하였다. 일제 강점기 이전에는 주로 중국이나 일본의 번역본을 중역하였고, 일제 강점기 이후에는 일본어 번역 서적이거나 일본 서적이 주로 번역 대상이었으며, 심미를 추구한 지식의 창출을 시도하였다. 심미를 추구하는 면에서 새로운 시도를 도모했던 문학서적의 경우 중역이나 원문의 번역이 활발하였다. 반면 철학 서적의 경우에는 중역본조차 1953년 김정준의 『참회록(Confessions)』이 유일하며 원문의 번역서는 전혀 없었다. 총 13권 중 10권까지 번역한 이 번역서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작품으로서 라틴어 원문의 영문 번역을 중역한 번역서이다. 이 작업은 개신교의 ‘문서 선교’의 일환으로 개종의 과정이 잘 나타나 있기에 ‘대한 기독교 서회’³⁾의 편집 위원회가 주도해 이루어졌다(정준영 29, 33-35). 철학 서적의 번역은 1930년대에 이르러서야 희랍 고전을 번역하면서 활발해졌고, 주로 일본의 번역서를 중역하였다. 영어 번역본의 중역은 일제 강점기 이후이며, 역사서 역시 마찬가지로 서구의 역사학을 직접 도입하기보다는 한자나

3) 1890년 6월 25일 ‘한국 문서 성교 성회’(The Korean Religious Tract Society)로 설립하였으며, 1919년 ‘조선예수교서회’(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로 개명했다가, 1948년 ‘재단법인 대한기독교서회’로 다시 이름을 바꾸었다. 이 출판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출판사로, 처음의 이름이 시사하듯, 이른바 ‘문서 선교’의 일환으로 창립하였다(정준영 34).

일본어로 번역된 서양의 역사서를 필요에 따라 다시 번역하였다(박관용 68).

한국어의 형성에 있어서는 일본어나 서양의 언어에서 비롯된 차용어의 수용이 눈에 띈다. 이는 일본어로 번역한 텍스트를 중역하면서 스스로 수용한 면도 있으나, 일제 강점기 후기의 언어말살정책과 맞물려 한국어에 일본어가 대량 유입되면서 근대의 한국어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일본어 차용어가 특히 많은 분야는 건축이나 의학, 복식분야, 학술 분야가 있다(김경호 4). 일본어는 서구 문명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한자 조어를 그대로 수용하거나 새로 만들었는데, 특히 접두어와 접미어를 이용한 조어 방법은 근대의 일본어 창출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일본어에서 비롯된 접사는 근대의 한국어에 유입되어 그대로 쓰이며, 대표적인 접사로는 ‘화(化)’와 ‘적(的)’과 ‘성(性)’이 있다.

위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근대화와 번역에 있어서 문학은 빼놓을 수 없는 분야이다. 한국 문학의 근대는 다양한 문학의 형태가 시도된 시기이다. 김병철의 근대 번역문학사 분류에 따라 개화기부터 6.25가 일어나던 해까지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김병철 1975 15). 제 1기는 1895년부터 1917년까지로 계몽가의 준비시기이다. 서양의 전기물이나 동화나 소설이나 그 밖의 일본어 책자가 한글로 중역되었으며, 자주독립 정신의 고취 및 반일정신을 일깨우기 위해 번역 운동이 일어났다. 다만 영어와 불어로는 시(詩)부문에 한해서 김억과 양주동이 원문을 직접 번역하기도 했다. 영미 번역시를 주로 『소년』에 실었던 최남선은 대체로 중역을 했으며(같은 책 280-309), 소년 중심의 독자에게 민족의식이나 자유의식을 심어주려고 애썼다. 그러한 글에는 대체로 명령, 당위, 예언의 어법을 띠며, 이는 독자를 가르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신분의 위계질서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뭐든지 이룰 수 있다는 신념을 근대의 사고라고는 하지만(주영중 238), 문학에서 보자면 계몽주의는 목적문학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미학의 본질과는 맞지 않았다. 일본의 번역본을 중역한 시들은 시의 내용 전달에 치중할 뿐 형식은 중시하지 않았다(같은 책 294). 국내의 잡지 대다수가 국민을 계몽시키고 독립정신을 고취케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면 일본인 다케우치가 간행한 『신문계』는 식민지 근대화의 확산을 위한 도구였다. 목적이 다른 두 잡지의 팽팽한 대결 구도는 1917년 『신문계』가 가진 폐간함으로써 막을 내렸다.

당시의 대표적인 잡지로는 최남선이 주도하던 『소년』과 『청춘』을 들 수 있다. 『소년』은 외국문학의 소개에 기초를 둔 반면, 『청춘』은 다양한 서양 고전을 축약 번역하여 서구문학의 소개에 힘썼으며 독자에게 상당한 호응을 얻어 근대문학의 저변 확대와 심화에 기여했다. 또한 계몽교육을 목적으로 과학, 수학, 역사, 지리 등에 관한 글을 실었다.

제 2기는 918년부터 1925년까지로 번역문학에 대한 각성(覺醒)의 시기이다. 서구 문학을 본격 이입하려던 시기이며, 당시 『태서문예신보(泰西文藝新報)』와 김억은 외국시의 번역에 매우 적극이었다. 『태서문예신보』는 문학성과 예술성을 중요시했으며 증역보다는 원작을 충실히 번역할 목적으로 서양의 명작을 소개하려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시를 제외한 분야에서는 신경향의 도입이 두드러지지 못했으며 자유로운 번안이 많았다. 김억은 프랑스 상징주의 시문학 위주의 해외시를 번역함으로써 새로운 시 형식에 눈떴다(김용직). 새로운 시에 대한 열망은 둘 다 유사했지만, 계몽이 목적이었던 최남선과 달리 김억은 새로운 시에 대한 탐색으로 당시 유행하던 서양의 낭만주의와 상징주의를 도입하였다. 영국과 프랑스는 물론이고 다양한 국가의 시를 두루 번역하였다. 김억의 시는 주체를 집단화하지 않으며, 자신의 메시지를 강요하지 않고, 의문과 감탄 등의 어법이 주를 이뤄 모호하고 감정적인 선이 드러나지만, 여타 다른 계몽기의 작품처럼 금지나 명령이나 예언의 형태를 취하지 않았다(주영중 238). 내용을 중시하던 기존의 관습을 이어가면서 형식까지도 고려하였다. 김억의 최초의 번역시집 『오뇌의 무도』는 한국 현대시 형태에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겼다.

안서 김억과 『금성』의 주재자 양주동 간에 번역의 방법을 두고 논쟁이 일어났다. 두 사람은 번역의 방법에 있어서 상당한 시각차를 보였다. 김억은 언어의 성질상 시를 번역하는 일이 불가능하기에 번역시를 가능케 하자면 번역자의 창작 노력이 필요하므로 원시의 사상에 번역자의 개성을 거쳐 창작하는 일이 번역이라고 생각했다(박강수). 즉 번역의 핵심을 창작에 두고 번역을 하나의 창작행위로 보았다. 이에 양주동은 김억의 의역 위주의 번역시를 두고 직역 위주의 번역을 역설했다. 김억은 극단적인 의역이라는 번역론에서 원작과 다른 시로 번역했고, 양주동은 원작에 충실해야 한다는 번역론에서 딱딱한 직역 위주의 내용은 충실하지만 형태를 못 갖춘 시로 번역했다.

제 3기는 번역의 궤도가 정해지고 본격화하려는 징조가 엿보인 시기로

1926년부터 1935년까지를 말한다. 이 시기에 외국문학을 번역하고 소개하여 한국문학의 발전을 꾀하고자 했던 집단은 특히 ‘해외문학파’였다. 해외문학파는 1926년 동경에서 ‘외국문학 연구회’라는 집단으로 결성하여 다음 해 『해외문학』을 창간하면서 문단에 등장하였다. 베를렌즈, 푸쉬킨, 로버트 브리짓스, 알프레드 뢰세, 후고 호프만스탈, 마아텔링크 등의 서구 근대 시인의 시를 주로 번역하였다. 해외문학파의 등장으로 번역론에 대한 논의 또한 활발했다. 사실상 1920년대가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기였다면, 1930년대는 외국문학의 영향과 수용 속에서 한국문학이 민족문학으로 형성되던 시기였다.

번역의 방법론을 두고, 해외문학파와 양주동 간에 또 다시 논쟁이 일었는데 해외문학파의 번역을 두고 양주동이 비판하면서 시작되었다. 양주동은 해외문학의 필요성과 유입된 해외 문학이 자국의 문학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때 의의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해외문학』에 실린 시가 지나치게 직역 위주라고 비판하였다. ‘오역이 없는 한에서, 원작을 허물어내지 않는 한에서 자유로운 의역을 시험하기 바란다’며 의역을 권했다(1927(1)). 자국어에 비추어 볼 때 쓰지 않는 문장이라면 의역만 못하고, 원작과 너무 동떨어진 번역이라면 번역의 가치가 없으니 직역체와 의역체를 적절히 참작하여, 지나치게 비문이 될 염려가 있다면 의역체를 가미하고, 의역이 원작과 동떨어진다면 직역체를 취하라는 의견이었다(1927(2) 94). 이에 대해 해외문학파의 창설과 유지에 큰 역할을 했던 이하운은 직역을 할 때만이 원작의 의미가 모두 드러나지만 원문에 따라 맛이 덜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때는 축자역만 고집할 수는 없다고 했다(1927). 김진섭은 시 번역에 있어서 원문에 충실하면 아름다움을 잃고, 아름다우면 충실하지 않으므로 항상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고, 직역과 의역을 취함은 전적으로 개인의 문제이니 강요치 말라고 했다(1927).

이 시기에는 번역에 관한 논의가 본격 전개되어 동아일보의 「이식(移植)문제에 대한 관견(管見)」(1927/6/28-1931/5/7), 『동광』의 「역시론(譯詩論)」(1931 5), 조선중앙일보의 「언어의 임무는 음향과 감정에까지: 번역에 관한 나의 태도」(1934/9/27-29) 등에서 번역의 중요성이나 번역에 관한 개인의 견해를 표출하였다. 해외문학파 가운데 적극적으로 번역 이론을 전개했던 사람은 이하운과 김진섭과 정인섭이었다(박성창 6). 이하운은 조선중앙일보에 연재했던 「세계문학과 조선의 번역운동」(1933/1/1-3)과 조선일보에 연재했던 「외국문학연구서론」

(1934 8/14-21)에서 번역이 매우 힘든 작업이며, 말과 글이 일치하지 상황에서 어휘의 빈곤을 따진다면 더더욱 지난한 작업임을 인정하였다. 이하운은 원어와 자국어의 언어 자질상의 차이나 문화의 차이 등에 수반되는 어감이나 리듬 등의 문제는 번역자의 능력으로 최소화 가능하다고 했다. 이는 곧 번역이 창조임을 강조하는 의견이다. 번역은 근대초기와 달리 단어수준의 모방이나 모사가 아니라 담론이나 담화의 수준으로 진행되었다. 번역텍스트는 원문텍스트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니며, 번역은 더 이상 기계적이고 수동적인 작업이 아니며, 번역자는 내용만을 전달하는 단순한 중개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김억은 번역의 창조성과 현재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오역의 문제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우(愚)를 범했다.

‘번역에 오역 갖튼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아니고 원문이란 재료에서 역자가 엮더한 창작품을 예술적으로 존재할만한 가치 있는 것을 만들었는가 못하였는가 하는 것만이 문제’ (동아일보 1927/6/28)

라는 김억의 말은 통칭으로 일컫는 번역이라기보다는 번역방법의 한 종류인 ‘번안’을 연상케 한다. 이하운을 비롯한 해외문학과에게는 창조적인 의역이라고 해서 반드시 충실한 번역이 아님이 아니며, 충실한 번역이 반드시 축자역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이하운은 자신의 번역시집 『실향의 화원(失郷의 花園, 1933)』에서 번역가는 번역가 이전에 독자이어야 하고, 비평가이어야 하며, 시 정신을 언어로 형상화할 수 있는 시인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박성창은 해외문학과가 한국 근대문학 역사상 최초로 이 점을 의식했다는 점에서 매우 높이 평가한다(9). 해외문학과는 번역의 필요성과 방법뿐 아니라 다방면에서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정인섭은 번역가의 정당한 대우와 번역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의 확산, 한국작품의 해외수출과 같은 번역 사업, 고유명사나 국문표기의 규정 등과 같이 번역에 대해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1940). 김진섭은 번역과 문화를 강조하여 번역이란, 선진문화인 서양의 문화가 후진문화인 한국의 문화로 흐르게 하는 길잡이로서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고, 그러한 세계문화를 향한 거리를 단축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번역의 문화사적 역할이라든가 번역가의 문화사적 사명, 번역의 한계와 번역문학론 등에 대해 언급하였다(1935).

번역의 문화사적 역할에 있어서 번역은 이민족과 타민족의 문화와 전통이 서로 접촉하는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문화의 소개자이며 매개체로서 다른 나라와 민족에 문화를 전파하고 존속시켜 보다 넓고 깊은 세계를 국민에게 직접 이식하고 내면화시키는 문화 행동이며, 그러한 세계를 원활하게 연결하는 심적 교량이라 했다. 이하윤은 번역의 사회, 문화 활동으로서의 위상을 다루며 번역 작업이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적절한 사람이나 경비가 필요하며, 번역자 스스로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번역활동과 적극적인 번역행위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일이 곧 사회의 협력을 요하는 번역운동으로 이어진다고 했다(1933). 함대훈은 번역을 해놓고도 발표할 길이 없다거나, 창작만큼 번역서의 독자가 없다거나, 번역을 해서는 생활이 유지되지 않거나, 외국문학 연구자가 적고, 학자들이 번역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낙후된 번역환경을 지적하기도 했다(1938).

해외문학과와 번역론은 외국문학의 수용방법으로, 외국문학의 수용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도 맹목으로 서구로 편향되지는 않았다. 무비판으로 과거 지향이나 복고주의를 따르지 않았을 뿐 전통을 인정하였으며, 서구문학의 수용을 강조하면서 서구의 수용이 한국의 문학세계를 풍부하게 할 거라는 점을 전제했다. 한국의 문학과 해외문학을 잇는 번역문학의 수립 또한 주장했다. 해외문학과는 이중역(二重譯)이나 삼중역(三重譯)을 피하고 원문에 충실한 번역을 추구하며 한국어의 완성을 추구하였다. 한국어의 향상을 도모해 새로운 단어나 사투리 및 거의 사용하지 않는 말들을 찾아내 한국어를 풍성케 하는 방법을 강구했다. 자국어로 표현되는 단어는 굳이 외국어를 차용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양주동(1927(2))과는 달리 해외문학과는 어휘를 풍부하게 하는 일이라면 외국어의 차용도 적극 수용했다. 해외문학과 가운데 번역과 언어에 가장 관심을 기울였던 정인섭은, 외국문학의 수입에는 자국어의 발달이 동반되며 모어의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1940). 자국어가 발달될 때 창작의 범위도 훨씬 넓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번역론의 전개와 달리 이들의 번역에 대한 질적인 평가는 수준 이하라는 혹평을 받았다.

제 4기는 번역에 있어 암흑의 시기로 1936년부터 1945년까지를 일컫는다. 이 시기에는 언어말살정책이 펼쳐지면서 일본어 서적이 물밀듯 들어오고,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출판계가 어려움을 겪었으며, 외국서적을 구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번역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제 5기는 재생의 시기로 1945년부터 1950년까지이다, 즉 해방 이후부터 6.25가 발발하던 때까지로 이 시기에는 러시아의 프롤레타리아 문학을 주로 번역하였으나 후에는 철저한 반공 정책으로 소련뿐 아니라 동구(東歐) 및 중공과 제 3세계 문학의 번역이 자취를 감췄다. 1953년 서울 수복을 계기로 출판문화가 개화기를 맞았으며, 암흑시대에 대한 반동으로 번역 문화는 르네상스를 맞아 전집이나 문고 형태의 출판이 기하급수로 증가하였다.

3.2 번역과 일본의 근대화

몇 안 되는 번(藩)의 하급 무사 중심으로 시작한 명치정부는 메이지유신으로 막부체제를 무너뜨리고, 중앙집권체제의 통일국가 형성과 자본주의 사회를 향한 변화를 시도하였다. 서구 열강에 대항할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이 목표였으며, 그 과정에서 개인의 독립과 권리와 자유를 추구하였다(김동기 2003). 그러한 과정은 봉건 전통의 핵심으로 간주된 유교주의를 극복하는 과정이었다. 번역은 근대화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수많은 서양의 선진지식에 대한 정보 공유는 물론이고, 봉건 이데올로기의 비판과 청산, 실학의 주장, 실증론, 독립자존, 쾌락설, 공리주의, 자유주의 및 입헌주의의 주장에 한몫했다(김동기 2005 250). 과거 일본어에 존재치 않던 수많은 새로운 개념의 언어가 번역어로 등장하며 각 분야에 언어가 풍부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네덜란드어와 중국어 번역본을 중역한 사례가 빈번해 중국의 한자에서 비롯된 한자어가 많고 원어를 그대로 차용 번역한 용어가 오늘날의 일본어 술어에 대부분 차지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

명치정부는 외국문물의 정보수집에 매우 적극이었는데 그 한 예로, 정권이 수립된 지 얼마 후인 1871년부터 1873년까지 이와쿠라 도모미(巖倉具視)를 특명전권대사로 하는 사절단에 정권의 지도자 절반가량을 구미로 파견했다. 명목상으로는 열강과 체결한 불평등조약의 개정이 이유였지만 실제로는 제도개혁을 위한 정보수집이 목적이었다(임성모 181; 김동기 2003 276). 이들에게 기대한 정보는 외국사무국(外國事務局), 의사원(議事院), 재판소(裁判所), 회계국(會計局)과 관련된 정치 법률 이론과 실무에 관한 정보, 조세법(租稅法), 국채(國債),

지폐, 관민외환(官民外換), 화재 해상, 도난 보험, 무역, 기차, 전선, 우편 등과 관련된 경제 활동에 관한 정보, 국민교육의 방법, 관민의 학교건설 방법, 비용, 집회법 등과 같은 다양에 분야에 있어서 일의 순서나 규칙, 등급을 부여하는 양식과 관민학교, 무역학교, 예술학교, 병원, 육아원과 관련된 정보였다.

전 국민에게 선진 열강의 지식을 접하고 익히게 해 근대화를 꾀하려 했던 명치정부에 있어 번역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계몽시킬 수 있는 도구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태정관(太政官) 내에 ‘번역국(翻譯局)’을 설치했을 뿐 아니라 원로원(元老院), 좌원(左院), 대장성, 문부성, 육군성, 사법성 등의 정부 기관에도 번역전담기구를 두어 무수한 서적을 정부주도하에 번역하게 했다. 번역국의 구성원은 대개 명치정부 이전의 개성소 출신으로 번역, 조사, 교육에 종사했던 막부의 지식인 관료출신이었다. 이들의 번역 작품을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임성모 166-169). 문부성판(版)으로 토머스 홉스(Thomas Hobbes, 1588-1679)의 작품 『리바이어던(The Leviathan, 1651)』을 번역하였고, 나카에 초민이 문부성의 위탁으로 베롱(Eugène Véron, 1825-1889)의 작품 『유씨 미학(1883-1884, *L'Esthétique*)』을 번역하였다. 문부성의 편서(編書)에 근무하던 니시무라는 영국의 윌리엄과 로버트 챔버스(William & Robert Chambers) 형제 편찬의 백과전서를 번역한 『문부성백과전집(文部省百科全書, *Chambers Information or the People*)』을 시작으로 대규모 국책 번역작업에 관여했다. 원로원판으로 가네코 겐타로는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 1729-1797)의 작품 『정치론략(政治論略, *Reflections on the Revolution in France*)』을 번역했으며, 태정관에서는 메이지 11년부터 13년까지 2년에 걸쳐 『일본 서교사(日本西教史)』 4권을 번역했다. 이 번역서 4권은 장 크라세(Jean Cresset, 1618-1692)의 『일본교회사(*Histoire de l'Eglise du Japon*)』를 번역한 책으로 그리스도교도가 일본에 와 박해받은 역사이다. 당시 번역작업에 관여했던 유신 시대의 관료는 당대 최고의 지식인층이었으며 다방면에 걸친 이들의 번역서는 문명개화와 근대화를 위한 방편이 되었다.

그 외 번역서로는 유신시대 초기 서양세계의 안내서 역할을 했던 ‘명치의 삼서(三書)’, 즉 『서양사정(西洋事情, 1866-70)』, 『흥지지략(興地誌略, 1870-75)』, 『서국입지편(西國立誌編, 1871)』을 들 수 있다. 또한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학문의 권유(學問のすすめ)』와 『문명론의 개략(明論之概

略)이 있으며, 밀의 『자유에 관해(On Liberty)』를 번역한 나카무라의 『자유의원리(自由之理)』는 출간되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김동기 2003 275). 당시에는 특히 역사를 다룬 만국사(萬國史)가 많았는데 팔리(Peter Parley, 1793-1860)의 『만국사(Universal History)』, 버클(Henry T. Buckle, 1821-1862)의 『영국개화사(英國開化史)』, 기조(François Guizot, 1878-1874)의 『유럽문명사(歐羅巴文明史)』 등을 이 시기에 번역하였다. 또한 유럽 문명의 유래를 기본부터 탐구하자는 생각에서 몽테스키외(Montesquieu, 1689-1755)의 『로마인 성쇠원인론(Consid rations sur les causes de la grandeur des Romains et de leur d cadence, 1734)』을 명치 16년 『로마 성쇠기(ローマ盛衰記)』라는 이름으로 세 권 번역하였다. 이처럼 만국사 번역이 많던 이유는 외국이나 어떤 지역을 살피는 방법으로 역사학적 접근이 예전부터 강했던 맥락에서 비롯된다(임성모 66-68). 철학관련 번역서로는 1887년 포이어바흐의 『신, 자유급자유(神, 自由及自由)』에서 도덕론 부분을 히사마츠 사다히로가 번역한 『도의학원리(道義學原理)』가 있다(김동기 2005 251). 메이지유신 이래 출판 동향을 살펴보면, 아주 이른 시기부터 병법 관련 서적과 염료와 화학 제조에 필요한 화학 관련 과학서적의 번역이 많았다. 서양의 사정을 기록한 간략한 만국사나 영미 역사서나 진화론과 관련된 사회사상서의 번역이 유행하였다. 새로운 제도 개혁에 참고할 만한 법률제도에 관한 서적과 농업 분야의 기술서적 번역 역시 유행하였다.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을 노리유키(何禮之 1840-1923)가 완역한 『만법정리(萬法情理, 1875)』가 대표적인 법률 번역서이다(임성모 193). 명치 9년에서 10년에는 소설이나 잡기 등의 번역서가 유행하였는데 점차 넘쳐나는 번역서로 인해, 야노 후미오(矢野文雄, 1850-1931)는 내무성 도서관에 납본된 역서 목록을 일일이 조사해 책과 대조한 뒤 『역서독법(譯書讀法)』을 저술해 독서목록과 독서순서와 독서방법 등을 제시하기까지 했다. 사회주의 서적과 관련해서는 사카이 토시히코(界利彦 1870-1933)가 최초의 사회주의 잡지인 『사회주의의 연구(社會主義の研究, 1905)』를 통해서 마르크스주의를 이론적으로 연구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그 보급에 힘썼다(임성모).

사전편찬의 변화는, 모리오카 씨가 분류한 영어 사전의 변천 4기로 엿볼 수 있다(김동기 2003 284-286). 제1기는 1862년에서 1872년까지로 영어가 난학에 의존한 관계로 『영난사전(英蘭辭典)』의 네덜란드역을 사용했다. 그러나 1866년

에서 1869년 로브사이드(W.Lobscheid)의 『영화자전(英華字典)』이 완성되면서 영어 일역(日譯)의 매개가 네덜란드어에서 중국어로 바뀌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2기는 1873년부터 1887년까지로 난학의 영향에서 벗어나 『영화사서(英華辭書)』를 이용하던 시기이다. 1873년에 출판한 『영화자휘(英和字彙)』가 명치초기 가장 널리 사용되었고, 1882년에는 신조어가 많이 포함된 『영화사전(英和辭典)』 2권이 출간되었다. 제3기는 1888년부터 1911년까지로 『영화사서(英華辭書)』에서 벗어나 미국의 사서(辭書)를 사용했으며, 일본의 독자적인 번역을 시도하였다. 1888년에 발간한 『화역영자휘(和譯英字彙)』와 『화역자휘(和譯字彙)』가 이 시기의 두드러진 사전이다. 제4기는 1912년 이후로, 1911년에 출간한 『모범영화사전(模範英和辭典)』과 1915년에 출간한 『영화대사전(英和大辭典)』이 있다. 메이지유신 이전에는 네덜란드어를 매개로 중역했던 번역이 메이지유신 이후에는 중국어를 매개로 중역이 이루어지다, 영어에서 직접 일본어로의 번역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대량으로 유입된 중국어 번역은 외국어의 성격이 있긴 해도 일부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쓰인다.

번역체와 관련해서 보자면, 문부성에 근무하던 나카무라의 번역체는 충실하면서도 치밀한 ‘주밀문체(周密文體)’의 선구로 평가받는다. 나카무라는 본문에 주석을 다는 외에도 시작 부분에 주석을 달아 각 부분마다 역자 자신의 논평과 주석을 첨가해, 전체 번역서가 나뉘어 간행될 때마다 번역자 자신의 ‘머리말’과 ‘논평’ 뿐 아니라 같은 분야에 몸담고 있는 다른 학자의 ‘머리말’까지도 첨부하였다. 형식면에서는 서적을 간행하는 사람이 행론의 각 부분이나 전체에 대해 동료의 평을 구하는 기존의 관행을 답습하지만, 이에는 저자와의 대화나 진지한 대결을 느끼게 하는 새로운 맛이 있다. 후쿠자와는 짜임새와 조리를 갖춘 논리 정연한 글보다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로 번역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원서가 새롭고 이질적인 사상을 서술할 경우에는 번역자가 일상의 쉬운 일본어를 사용하면서도 말을 뒤섞어 문맥상의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려 하기에 의미가 바뀌기도 한다(김동기 2003 275).

당시 번역어를 취하는 방법은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같은 책 278). 첫째는 난학자의 번역어를 차용하는 방법으로, 자연과학과 관련된 기술어가 그러하다. ‘선(腺)’, ‘철폐(臍)’, ‘수소(水素)’, ‘탄소(炭素)’, ‘염산(鹽酸)’ 등이 이에 속한다. 두 번째는 중국어 번역본에서 차용하는 방법으로 ‘권리(權利)’와 ‘의무

(義務)’가 그러하다. 세 번째는 고전에 있는 중국의 어휘를 전용하는 방법으로, ‘자유(自由)’와 ‘이성(理性)’은 『후한서(後漢書)』에서, ‘문학(文學)’은 『논어(論語)』에서 전용한 예이다. 네 번째는 새로운 어휘를 만드는 방법으로 기존에 없던 서양의 개념을 다양한 일본어로 옮겨 쓰다가 대중의 선호에 따라, 전문 조직이나 단체의 노력으로, 정부의 영향 하에, 관용으로 쓰다가 특정 어휘로 통일해 쓰는 신조어(新造語)가 그러하다. 서구자본주의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신조어가 양산되었다. 철학이나 논리학, 심리학 용어 중에 이 시기에 생성된 용어로는 연역법, 귀납법, 외연, 개괄, 명제, 전칭, 혼체 등의 논리학 용어와 추상력, 주체, 의식, 이성, 주관, 의식, 지각, 양심, 우주, 세계, 만유, 세력, 원기, 과학, 학문, 학과, 개념, 가치, 가격, 사상, 관념, 이데아, 이념, 이상, 형이상학, 실존, 시민, 등의 철학이나 심리학 용어가 있다(김동기 2005 258-263). 한자(漢字)를 이용한 무수한 번역한자어는 일본에서만 사용되지 않고 한국이나 중국으로 유입되어 그대로 사용되기도 했다.

번역어에 대해 키요노 츠토무(清野勉, 1853-1904)는 ‘외면의 어의(語義)’로 번역하는 방법과 ‘사실을 바탕’으로 번역하는 방법을 지적하며, 원어의 의미를 철저히 조사하지 않은 어의 번역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키요노는 일본어의 단어와 원문의 단어가 상응한다면 상응하는 단어를 채용해야 하고, 상응하는 단어가 없다면 원문의 단어가 뜻하는 의미로 번역하는 명명법을 제시한다. 마지막 방법으로 원어를 그대로 채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지만 함부로 원어를 채용하는 일은 경계한다(같은 책 252-257).

각 학문 분야에서 쓰는 번역어는 동일한 원어라 해도 분야에 따라 달리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김동기 2003 287). 철학에서는 하나의 원어에 대해 다양한 번역어를 사용했으나, 물리학이나 광물학에서는 하나의 원어에 대해 하나의 번역어를 사용한 예가 대다수였다. 물리학에서는 일본어식 표기가 많은 반면, 광물학에서는 한어와 외래어가 많았다. 철학에서는 두 글자로 된 한어가 대부분이었다. 광물학과 철학에서는 일상에서 쓰지 않는 중국어 차용 한자가 많은 반면, 물리학에서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띠면서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쉽고 명확한 용어가 많다. 근대화의 도구로 번역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일상에서 쓰지 않는 용어가 난무했으며, 자국어로 번역하지 않고 외래어를 소리나는 대로 번역해서 생기는, 문화 측면에서의 정체성 상실이라는 부작용

용도 엿보인다.

4. 번역과 양국의 비교 분석

4.1. 번역과 근세의 양국 비교 분석

번역을 둘러싼 근세의 배경과 관련해 양국의 상황을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역학의 장려와 관련하자면, 한국의 경우 초기부터 한학이나 몽학, 여진학, 왜학 등의 역학을 장려하고, 역관을 등용하는 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연산군에 이르러 자신을 비방하는 투서가 언문으로 쓰인다는 이유로 언문의 교습을 중단시키고 언로(言路)를 막아 역학이 매우 위축되었다. 이후 주변국의 정세 변화에 따라 후대의 왕들이 한학과 청학 등의 역학을 장려했으나 예전처럼 활발한 부흥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대원군의 쇄국정책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고착화시켰다. 이에 비해 일본은 에도막부가 쇄국정책을 펼치긴 했어도 나가사키 항구만은 개방해 서양의 문물을 접하도록 했고, 여기에서 얻은 정보를 정권 유지 정책에 반영해 남만학이 난학으로, 난학이 다시 양학으로 발전토록 했다.

번역전담기구의 설립에 있어서, 한국은 주변국가와의 교섭에 필요한 외국어 학습 기구이자, 역관의 양성기관인 사역원을 설치해 활발한 활동을 했으나, 점차 그 역할이 축소되었다. 개화기에는 통리기무아문 내에 어학사를 설치해 번역전담기구의 역할을 하도록 했으나 실질적인 역할은 없었다. 일본은 초기에 설립한 만서화해어용이라는 번역전담기구의 영역이 점차 남만학에서 난학으로, 난학에서 양학으로 확대되면서 만서조소, 양학조소, 개성소로 명칭을 바꾸며 다양한 서양언어의 습득 및 번역서의 선정, 검열, 인쇄 및 출판 사업으로 그 활동 영역과 역할을 넓혔다.

통역가나 번역가 양성기관에 관하자면, 한국은 사역원에서 역관의 양성을 실질적으로 맡았고, 개화기에는 동문학에서 통역가를 양성하였다. 3년 뒤에는 육영공원에서 영어로 수업을 하며 인재양성을 도모했으나 지배층의 고위 자제로 제한된 피교육자의 보수적인 특성으로 실효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에서 설립한 외국어 교육기관이나 통역가 양성기관은 근대의 학교나 대학교로 발전하

지 못하고 결국 일반 영어 학교로 전락했다(김재현 2004 314). 일본의 경우에는 번역전담기구가 실질적인 통번역 관련 인재양성 기관의 역할을 했으며, 한국과 달리 봉건정부의 외국어 교육기관이 독립 후에 각종 근대학교나 대학교로 발전하여 근대화에 일익을 담당했다.

번역가의 출신과 대우에 있어서, 한국은 번역가나 통역가를 일컫는 역관을 통사라고도 했으며 이들은 중인 출신에 세습제였다. 역학이 활발하고 역관의 대우가 좋을 때는 출신에 상관없이 개인의 능력에 따라 극히 드물긴 해도 이품직과 같은 양반에 기용되었고, 양반에 탁용할 것을 정책적으로 시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태생인 중인 출신에서 비롯된 듯 역학을 잡사나 잡예라 하여 역관을 천시하였다. 일본 역시 번역가나 통역가를 통사라 하고 세습제로 시행했으나, 겨우 30여 가구만이 독점으로 관여하였고, 그 출신이 한학자나 지식인층, 지배계층인 관료출신으로서 높은 보수와 존경을 받았다.

자국어와 번역의 관계에서 보자면, 한국의 경우 조선시대 세종과 세조, 중종 재위 시 운서, 불경, 문학서 등의 한문을 이해하여 자국어 형성에 기초를 다졌지만, 자국어의 형성정도가 매우 미약해 어휘 부족이 상당하고 문법체계가 정비되지 않아 번역의 어려움을 한층 가중시켰다. 또한 한자어를 선호하고 자국어를 경시하는 풍토라 세종, 세조 이후에는 언문번역이 큰 실효가 없어 기존의 언문 불일치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다. 일본의 경우는 활발한 번역활동으로 기존의 어휘뿐 아니라 한자어와 서양어에서 비롯된 수많은 신조어와 차용어가 자국어를 풍성케 했을 뿐 아니라, 문법 체계도 대략 정비되어 현재 사용하는 문법용어 대다수가 이 시기의 산물이다.

번역활동에 실질적인 도구가 되는 사전 편찬에 있어서, 한국의 경우 개화기 전에는 대대적인 대역사전의 편찬이 있었다. 그러나 개화기 이후에는 일본에서 유입된 일본어 관련 사전이나 한자관련 사전, 일본어로 편찬된 외국어사전이 있을 뿐 자국어로 편찬된 서양어 관련 사전은 매우 적었다. 그나마 번역가들이 구입할 만한 경제 사정이 되지 않았다. 서양의 원문 번역이 거의 없고 일본 번역서의 중역이 많던 이유는 바로 이 같은 사전부족에서 기인한 외국어 실력이 주된 요인이다. 일본의 경우 난학이 성했던 관계로 영어-네덜란드어 사전의 네덜란드번역본을 사용하였으나 점차 국가주도로 네덜란드어-일본어 사전을 편찬하여 네덜란드어를 매개로 서양문물의 접하면서 난학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일

본 역시 네덜란드 번역서의 중역이 빈번했다.

번역론에 관한 담론에 있어서, 한국은 개화기의 소수 지식인과 언론기관인 박문국의 한성순보나 한성주보에서 번역의 중요성과 번역의 방법론에 대해 논했다. 자국어의 중요성과 국가 주도의 번역전담기구의 설치를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쇄국정책 뒤 혼란스러운 대외 관계 후 일제 강점기에 들어가는 상황과 맞물려있다. 일본의 경우는 아편전쟁과 청일전쟁을 계기로 탈아입구를 외치며 번역의 중요성을 정부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번역의 방법론에서도 구체적으로 번역, 의역, 직역의 방법을 제시하며 적용하였다.

이상을 살펴보면 근대를 앞둔 근세 후기의 상황에 있어서 한국은 여러모로 근대를 맞을 준비나 근대화에 대한 계획, 근대화를 위한 제도나 도구, 인재가 마련되지 않았다. 반면 일본은 근세를 통틀어 이미 정부 주도의 번역사업과 번역전담기구, 외국어 교육기관, 난학과 난학자, 번역 문화, 자국어의 발달이라는 제도면이나, 학술면에서, 인재면에서, 도구면에서, 언어면에서 근대화를 위한 초석이 마련되었다.

4.2. 번역과 근대화의 양국 비교 분석

양국에 있어서, 번역은 근대화의 도구가 되어 서양문물의 소개와, 신지식의 확산 및 수용,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문화의 생성, 국정(國政) 전반에 걸친 제도의 확립, 풍부한 어휘의 보강과 문법 체계의 형성을 통한 자국어의 확립과 확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며 커다란 기여를 했다. 부정적으로는 타문화의 무비판적인 수용과 중역을 통한 타문화와 타언어의 자국화가 주체성 상실의 문제로 이어져 지금까지도 갑론을박(甲論乙駁)의 처지에 있다. 번역과 근대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양국의 뚜렷한 차이는, 일본이 제국주의에 심취해 있던 열강의 간섭 없이 특정의 목적 하에 정부 주도로 광범위한 분야에서 대대적인 번역을 이용해 근대화에 성공했다면, 한국은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인 상황과 맞물려 자국 주도의 성공적인 근대화를 이뤄내지 못했으며, 번역이 지배국의 식민지화 도구로 이용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양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번역 제반 양상을 항목별로 비교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서양 문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자면, 한국의 경우 소수 지식인이나 언론매체가 계몽을 위한 서양문물의 도입이 필요함을 인식했다. 소수의 유학생을 제외하면 일본 유학생이 대다수였지만 이들이 주축이 되어 번역을 이용해 서양문물의 소개에 나섰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인 상황과 맞물려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지식인이나 관련 학계에서 그리 좋은 평판과 대접은 받지 못했다. 일본이 정부차원에서 부국강병과 계몽을 통해 선진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서양문물의 유입과 수용이 반드시 필요함을 인식하고, 그 방편으로 유학생이나 관료를 대거 사절단이라는 이름으로 구미로 보내 국정 전반에 걸친 서양문물의 정보 수집에 나선 일과는 상당히 비교된다. 심지어는 밀항을 시켜 유학을 보내기도 했다.

번역전담기구의 설치에 있어서, 한국의 경우 국가에서 설립한 번역전담기구가 없다는 점과 하며 근대화의 일환으로 계몽을 위해 유학생 위주의 지식인층이나 신문, 잡지, 종교 단체에서 번역에 관여했다. 독립신문, 매일신문, 제국신문,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소년, 청춘, 태서문예신보, 금성, 해외문학과 같은 매체에서 계몽과 독립의식의 고취 및 새로운 문체의 도입을 위해 번역에 적극 가담했으며, 자국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당시는 주로 계몽을 위한 역사서나 전기물, 시, 소설과 관련된 번역서가 대다수였다. 신문계만은 번역을 식민지화의 도구로 이용했다. 반면 일본은 정부차원에서 번역전담기구인 번역국을 태정관, 원로원, 좌원, 대장성, 문부성, 육군성, 사법성 등의 각 조직에 설치하여 관료에게 대대적인 번역 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부국강병과 정치, 법 등과 관련된 신제도의 도입을 도모했던 일본에서는 병법관련서나 화학제조와 관련된 과학서, 만국사, 기술서(技術書), 사회, 정치 관련 번역서가 많았다. 그러나 번역 사업이 특정 목적을 두고 권력기관에서 주도되다보니 번역의 왜곡현상도 있었다. 스펜서(Herbert Spencer)의 『사회정학(Social Statics)』을 마쓰시마 쓰요시가 『사회평권론』이라 번역하여 자유민권 운동가의 성전(聖典)이 된 예가 그 대표 사례이다(임성모 54).

통역가나 번역가 양성기관과 번역가의 출신과 대우에 있어서는, 한국의 경우 국가 주도의 통역가나 번역가 양성 기관이 없었으며, 유학생이나 작가, 선교사가 주로 번역을 했다. 이들의 대우에 있어서는 보수가 특히 좋거나 일반인의 존경을 받거나 하는 일은 없으며, 번역가가 문단에서 활동할 경우 오히려 문단

에서 차별을 받았다는 진술도 있다. 일본의 경우는 개성소나 번역국 출신의 지식인이나 관료출신이 번역에 관여하였다. 번역가인 통사들은 출신이 지식인 계층이거나, 지배계층인 관료이거나, 난학자 등 학자출신이었으므로 세인의 존경과 높은 보수를 받았다.

자국어와 번역의 관계에서 보자면, 한국의 경우 자국어의 어휘가 턱없이 부족하고 문법의 체제가 정비되지 않아 번역어의 표기방법만 가지고도 지루할 만큼의 논쟁과 소모전을 치러야 했다. 국문체로 할 건지, 국한문공용체로 할 건지 논의가 분분했고, 띄어쓰기와 같은 문법 요소도 논쟁거리였다. 일체의 개입으로 국한문공용체가 우위를 점하고, 언어말살정책으로 번역의 불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일본의 서적과 번역서를 대거 번역 또는 중역하면서 일본어를 차용해 자국어를 풍성케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자의로 인한 차용이 아니라 강압으로 인한 차용이 대다수라 민족의 정체성과 연계되어 현재까지도 논쟁거리이다. 또한 번역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용어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동일한 원어라 하더라도 다양한 번역어가 존재했다. 일본 역시 자국어의 발달에 번역이 상당한 기여를 했지만 한자를 이용한 조어나 서양의 어휘를 그대로 차용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신조어가 일본어에 유입되어 정체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타의와 강압으로 인한 차용이 아니라 자의와 선택으로 인한 차용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경우와는 분명 다르다. 신조어의 생성과정에서 이용된 다양한 신조어 방법은 사뭇 창의적이다. 현대에 쓰는 수많은 용어가 근대를 전후한 시기에 생성된 용어이다. 어찌되었든 번역이 자국어를 풍부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사전 편찬에 있어서, 한국은 근세와 사정이 비슷해 일본의 사전류를 재번역하여 주로 활용하였다. 일본이 아닌 다른 국가로 유학한 학생이 많지 않았고, 일제강점기 하에서 한글말살정책의 결과로 일본어에 능해 일본어 원서를 읽을 수 있기에 번역의 불필요성까지 제기된 마당이고 보니 영어-한국어 사전이 많지 않았다. 국가 주도의 번역정책이 없던 점도 그 이유였다. 일본의 경우는 메이지유신 이전에는 네덜란드어 사전을 매개로 번역이 이루어졌다. 이후 영어-중국어 사전이 유입되면서 네덜란드 대신에 중국어를 매개로 번역이 이루어졌고, 영어-일본어 사전이 출간되면서 일본인의 독자적인 번역이 가능했다. 일본의 경우는 차근차근 단계를 밟으며 주변에서 중앙으로 사전이 번역보조도구로서의

역할을 다한 셈이다.

번역론에 관한 담론에 있어서, 한국의 경우는 김억, 양주동, 해외유학파가 활발하게 번역의 방법과 번역을 둘러싼 담론에 참여하였다. 번역의 필요성은 물론이고 직역과 의역과 같은 번역의 방법, 번역과 창작, 번역과 번역가의 지위, 번역가에 대한 정당한 대우, 번역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의 확산, 한국작품의 해외수출과 같은 번역 사업, 고유명사나 국문표기의 규정, 번역과 번역가의 역할, 번역과 문화, 번역의 한계와 번역문학과 같은 다양한 주제가 이미 이 시대에 논의되었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번역을 통한 타자의 인식이 이미 근세에 있었다. 다른 문화의 이질성에 대해 완벽하게 인식하고자 할 때 독창적인 사상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 뿐 아니라 번역, 의역, 직역과 같이 번역의 방법을 분류하고 적용했으며 번역어를 취하는 방법도 범주별로 분류하였다. 신조어를 포함하는 번역용어의 선택 등의 논의 역시 이 시기에 있었다.

일본의 근대화가 아시아국가에서 유일하게 성공했던 이유는 중국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계기로 일찌감치 부국강병을 향한 근대화를 적극 추진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시기에 서구 열강들이 각기 전쟁의 와중에 있어 일본에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당시의 열강인 러시아와 영국·프랑스가 직접 크림전쟁의 와중에 있었고,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독일이 간접으로 크림전쟁의 와중에 있었으며, 미국은 남북전쟁의 와중에 있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일본은 자국의 계획대로 착착 근대화를 진행해 성공할 수 있었던 반면, 일본의 근대화보다 30년가량 뒤쳐진 한국은 서구 열강들이 다시 식민지 쟁탈전에 돌입한 데다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마저 제국주의로 돌아서 식민지 쟁탈전에 동참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한국의 근대화는 외세에 휘둘릴 수밖에 없었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며 타의에 의한 강압적인 근대화의 여정을 걷게 되었다.

5. 나오는 말

이상의 조사와 분석으로, 번역을 둘러싼 근세의 배경이 근대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번역이 한국과 일본의 자국어 형성이나 서구문물의 도입과 수용,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계몽, 부국강병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양국의 근대화는 그 추진력과 성과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의 주된 요인은 주변 열강들의 정세와 정부 주도의 번역전담기구의 설치, 대대적인 번역 정책과 번역 사업의 유무이다. 이러한 정부 주도의 번역지원 활동은 번역가의 지위와 활동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 번역가의 자질 향상과 높은 대우, 좋은 보수, 훌륭한 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양국의 번역과 근대화를 돌이켜보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급변하는 주변정세에 대한 신속한 상황 파악과 앞날에 대한 예측, 그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그 대비책을 실현하려는 위로부터의 주도면밀한 실천과 전 국민으로의 확산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이 톱니바퀴처럼 아귀가 맞아떨어질 때 원하는 결과를 성취할 수 있다. 요즘과 같이 국가와 국가 간에 경계가 모호하고, 국제무역활동이 활발하며, 사람들의 활동영역이 전 세계로 확대되는 시대는 번역과 근대화의 시기를 연장케 한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주도적이고 주도면밀하며 광범위한 번역정책과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그러한 정책과 지원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대안은 추후의 연구에서 기대해 봄직하다.

참고문헌

- 강신향. 2000. 『韓國의 譯學』. 서울대학교.
- 김경호. 2007. 「일본어에서 차용된 의학용어 조사 연구-번역의학서를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33:3, 3-19. 한국일본어문학회.
- 김동기. 2003. 「일본의 근대와 번역」. 『시대와 철학』 14: 2, 263-290. 한국철학사상연구회.
- _____. 2005. 「일본 근대철학의 형성과 번역」. 『시대와 철학』 16: 1, 247-277. 한국철학사상연구회.
- 김병철. 1975. 『韓國近代翻譯文學史研究』. 서울: 을유문화사.
- 김용직. 1967. 「태서문예신보연구-그 시작과 시론을 중심으로」. 『단국대국문학논집』. 단국대학교.

- 김재현. 2004. 「철학 원전 번역을 통해 본 우리의 근현대」. 『시대와 철학』 15:2, 305-331. 한국철학사상연구회.
- 서은주. 2004. 「번역과 문학 장(場)의 내셔널리티」. 『한국문학연구학회』 24, 47-76. 한국문학연구학회.
- 박강수. 1987. 『안서김억전집: 5권 문예비평논집』. 한국문화사.
- 박광용. 1998. 「한국 근대역사학에서 나타나는 전근대역사학의 계승과 서양 근대역사학의 수용양상」. 『인문과학연구』 3, 67-98. 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박성창. 2005. 「한국근대문학과 번역의 문제: 해외문학과 번역론을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13: 1, 1-25. 국제비교한국학회. 한국문학연구학회.
- 이건상. 2004. 「일본의 근대화에 영향을 끼친 번역문화」. 『일본학보』 58, 443-456. 한국일본학회.
- 이경훈(역). 1995. 「근대의 초극 좌담회」. 『한국문학의 연구』 5, 216-289. 한국문학연구학회.
- 이광린. 1991. 「통리기무아문의 조직과 기능」. 『개화파와 개화사상연구』. 일조각.
- _____. 1995. 「육영공원의 설치와 그 변천」. 『한국개화사연구』. 일조각.
- 이근희. 2001. 「번역 정책에 관한 고찰: 국가별 번역사를 통해 살펴본 번역 정책의 고찰 및 번역 발전을 위한 소고」. 세종대학교.
- 임성모(역). 마루야마 마사오 · 가토 슈이치. 『번역과 일본의 근대』. 서울: 이산.
- 정선태. 2003. 「근대계몽기의 번역론과 번역의 사상」. 『배달말』 33, 93-114. 배달말학회.
- 정인섭. 1959. 「비교문학과 동서문학교류」, 『한국문단논고』. 159. 신홍출판사.
- 정준영. 2003. 「근대 한국 사회에서 서양 중세 철학의 수용과 번역의 문제」. 『시대와 철학』 14:2, 25-53. 한국철학사상연구회.
- 주영중. 2006. 「최남선과 김억의 번역시 연구」. 『비교한국학』 14:2, 217-242. 국제비교한국학회.
- 최경욱. 2007. 「메이지기의 번역어 성립과 한국 수용에 관하여」. 『일어일문학연구』 61:1, 341-357. 한국일어일문학회.
- 한기형. 2004. 「근대잡지와 근대문학 형성의 제도적 연관」. 『대동문화연구』 48,

33-7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Baker, Mona. 1998.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참고기사

- 김진섭. 1935. 4. 17.~5. 5. 「번역과 문화」. 조선중앙일보.
정인섭. 1940. 6. 7. 「세계문학과 한국문학」. 조선일보.
양주동. 1927(1). 3. 2~3. 「‘해외문학’을 읽고」. 동아일보. 1
양주동. 1927(2). 「문단여시아관(文壇如是我觀)」. 『신민』26. 94.
이하운. 1927. 3. 20. 동아일보.
이하운. 이하운. 1933. 1. 1. 「세계문학과 조선의 번역운동」. 조선중앙일보.
함대훈. 1938. 12. 16. 「번역문학론」. 조선일보.

[Abstract]

Translation and Modernization in Korea and JapanLee, Geun Heui
(Sejong University)

Translation has become an important tool for modernization all over the world. Through translation, Japan and Korea have been able to introduce Western institutions, cultures and knowledge about sciences, philosophy, and so on. Especially in modern times, the role of translation was prominent in both nations. They enlightened their people and enriched their languages with new words and expressions by the way of translation. However, modernizations in Japan and Korea have been evaluated differently. Academics have considered Japan's modernization successful, while they have not made this assumption for Korea.

The aim of this paper was to find translation differences related to the topic of modernization between Japan and Korea.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significant distinctions.

Japan had begun modernization before the modern age: It had institutions responsible for translation activities run by the government, well-educated translators, interest in Western academic knowledge and culture, translation aids which were dictionaries, and an enlarged language with new words using Chinese characters and borrowed Western languages. Korea did not do this. Japan proceeded with modernization without the intervention of great powers such as Russia, France, England, Austria, Italy, and Germany. They were in a war respectively. Korea faced invasion from many countries including Japan. Korea had been undergoing modernization with high pressure from outside.

▶ Key Words: Modernization, Japan, Korea, Modern ages, translation, modernization, modern times

이근희

세종대학교 초빙교수

ghlee@sejong.ac.kr

관심분야: 영문학(번역학)

논문투고일: 2007년 10월 30일

심사완료일: 2007년 11월 26일

게재확정일: 2007년 12월 15일